

이덕일의 '역사의 창'



연풍민안(年豊民安)

우리 민족에게는 새해 첫날 서로 덕담(德談)하는 풍습이 있었다. 당(唐)나라 역사서인 '구당서(舊唐書)'의 '신라 열전'에 "신라는 새해 첫날을 중하게 여겨서 서로 축하하면서 잔치를 베풀다. 이 날에는 매번 해신과 달신에게 제사 지낸다"는 기록이 있다. 새해에 서로 덕담하는 민족의 풍습은 신라만이 아니라 백제·고구려 등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새해 첫날 궁중에서는 임금과 백관이 서로 하례하는 하정례(賀正禮)를 실시했는데, 그 전에 글 잘하는 문신에게 연상시(延祥詩)를 짓게 했다. 연상시는 영상시(迎祥詩)라고도 하는데, 새해에는 나라에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시로써 축원하는 것이다.

정월 초하루의 연상시를 임춘(立春)과 단오(端午)날에 대궐 안의 전각 기둥에 써서 붙인다. 이 기둥에 쓴 주련(柱聯)을 임춘 첩자(帖子), 단오 첩자라고 한다. 세로로 연상 시구(詩句)를 쓰고 위에는 연연, 아래는 연꽃을 그렸다. 대궐에서 연상시를 써 붙이던 풍습이 민간에 퍼진 것이 임춘첩(立春帖)이다.

임춘첩은 춘련(春聯)이라고도 한다. 민간의 임춘첩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은 '입춘대길 건양대경'(立春大吉 建陽多慶)으로서 "봄을 맞아서 크게 길하고 경사로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한다"는 뜻이다.

전라도 해남 출신의 문신 미암(眉巖) 유희춘(柳希春:1513-1577)은 중종8년(1513) 12월 23일 임춘첩을 써 붙였다. 임춘첩은 대문 양쪽에 서로 대구(對句)로 써서 붙이는데, 유희춘은 대문 바깥에는 '연풍요락사(年豊樂樂事)' 가태경안한(家泰更安閑)'이라고 써 붙였다. "새해에는 풍년이 들어 오죽하고 즐거운 일이 많고, 집안은 크게 평안하고 또 평안하고 한가로워라"는 뜻이다. 안쪽 문에는 '방국은광대(邦國經光大) 전원을미심(田園興味深)'이라고 써 붙였다. "나라의 은혜가 밝고도 크고 전원에도 흥미가 깊구나"라는 뜻이다. 나라의 은혜가 크지만 벼슬을 떠나 전원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담은 임춘첩이었다.

미암 유희춘이 임춘첩에 '풍년이 들다'라는 뜻의 연풍(年豊)을 쓴 것처럼 다산 정약용의 시구에도 '어몽식년풍(魚夢識年豊)'이란 구절이 보인다. "물고기 꿈을 꾸었으니 풍년이 들 것을 알겠네"라는 뜻이다. '시경(詩經)의 '소야(小雅) 홍안지십(鴻雁之什)에 "수많은 물고기는 풍년이 들 징조라네"라는 구절에서 딴 시구다.

하고 풍년이 들기를 바라네(時和歲豊)" 같은 임춘첩도 있다. 여기의 시화세풍(時和歲豊)은 시화연풍(時和年豊)과 같은 뜻이다. 정조 임금은 "입춘첩 새로 써서 풍년을 기원하노라(立春新帖願豊年)"라는 임춘첩을 썼다.

연풍(年豊), 즉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것은 요즘 말로 경제가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야 백성들이 편안한, 민안(民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후한서(後漢書)의 '염범(廉范) 열전'에는 후한의 염범이 촉군(蜀郡) 태수가 되어 금화(禁火)와 야간 통행금지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하자 백성들의 생활이 크게 나아져서 이렇게 노래했다 한다. "염속도(염범)여, 왜 이리 늦게 오셨소. 불을 금하지 않아 백성들이 편하게 일을 하니 평생 저리고 한 벌 없던 내가 지금은 바지가 다섯 벌이나 된다오." 새해에는 정부가 염범처럼 발상의 전환으로 경제 정책을 펼쳐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사한기림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의료칼럼

허리 수술의 두려움



김종선 첨단우리병원 원장

1920년께 허리 디스크 제거술이 시작됐고, 1967년에 야사길(Yasagil)이란 의사가 수술 현미경을 이용해 허리 디스크 제거 방법을 발표하면서 허리 수술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디스크 수술이 근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도 50년이 지났으니, 이제 완전 정복됐다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

를이나 어깨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관절 경이 척추 수술에서도 도입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보편화된 수술법이 되기에는 아직 과제가 많다. 일반인들은 척추 수술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술을 많이 해본 필자의 경험으로는 테크닉적으로 가장 쉬운 수술이 척추 수술이다. 하지만 결과를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것 또한 척추 수술이다. 그래서 척추 외과의사는 수술 전에 환자 상태를 세심히 검토해야 하고, 수술 후에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고, 어디까지 어려운지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만약 척추 신경이 한 가닥이라도 간단하지만, 여러 개가 얽혀있어 그 실타래를 풀기가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이다.

만들어달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필자 경험상 척추 치료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과 근육이다. 통증 치료의 성공 열쇠는 근육 강화인데, 안타깝게 통증이 심하면 근육 강화 운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고령 환자가 근육을 만들기도 쉽지 않다. 고령인데 오랜 척추 질환으로 근육이 말라버린 환자는 척추 외과의사라도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 수술을 안 하면 근육은 더 약해지고, 수술을 해도 환자 만족감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 환자, 오랜 기간 잠고 살다가 수술받는 환자, 신경 성형술이나 신경 주사 같은 시술을 많이 받은 환자들이 수술 할 때는 몇 가지 위험이 따른다. 면역력이 약해서 있어서 수술 부위가 잘 낫지 않고,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신경이 좋지 장처럼 얽여져 있어서 수술 도중에 살짝만 건들어도 신경을 다칠 수도 있다. 혈관도 약해서 피가 잘 나며, 지혈이 잘 되지 않는다. 신경 지나가는 길을 넓혀나도, 신경이 바로 퍼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퍼지고, 잘 안 퍼지는 경우도 있다. 근육이 약해서 수술 후 재활 기간에 근육이 다시 강해져야 통증이 사라지는데, 근육이 다시 강해지는 데에는 수개월, 수년

이 걸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은 왜 필요할까? 요추 협착증 환자를 4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수술한 환자의 62%, 수술 안 한 환자의 42%가 만족감을 표했다고 한다. 척추 외과의사들의 눈문을 보면 수술의 성공률은 대체로 80~90%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환자의 만족감은 80% 정도라는 것이다. 수술을 안 했을 경우에는 40% 정도의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두 배 정도의 차이인데, 척추 수술은 시도해볼 만한 수술이라고 생각한다. 협착증보다 디스크 수술의 만족감은 더 큰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적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수술받는 이유이다. 무조건 수술만이라는 말은 아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나 일상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적절한 약물과 물리 치료로 좋아질 수 있다. 필자 또한 팔구십 퍼센트 이상의 환자를 비수술적으로 치료하고 있고, 환자들도 만족해 한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척추 수술을 꼭 받아야 하나?'라고 걱정하면서 밤을 지새고 통증을 참고 있는 분들을 위해 조그마한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차 완성차 공장 유치해야 한다



이종진 광주리리카인흥원 경영본부장

을 밝히자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에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한발 물러나 논란이 된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자고 했지만, 이번에는 현대차가 수용 거절 의사를 밝히며 또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광주형 일자리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을 쏟아 부은 터라 시민들의 허탈감은 더했다. 처음부터 광주형 일자리가 쉬운 일이 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노사민정의 입장이 모두 다르고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도 현대차 울산공장과 기아차 광주공장 근로자들의 입장이 다르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입장이 또 다르다. 기존 근로자들과 새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 입장이 같린다. 최근 자동차 시장이 축소되어 기존 자동차 근로자들은 연장 근로수당과 상여금이 못 받는 상황인데, 새로운 자동차 공장을 만든다니 달가울 리 없다. 노동조합 안에서도 자식들 취업을 걱정하는 아버지 세대 노동자와 삼촌이나 형님 세대 노동자 입장은 다르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자사 노동자들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다. 광주형 일자리

를 서두르라고 재촉하는 청와대와 정치권 눈치도 봐야 한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받을 수 있다고 엄포도 놓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 난처하다. 과거처럼 현대차를 마냥 압박할 수도 없는 구조다. 이처럼 각자가 처한 상황과 입장이 다 다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마디씩 충고를 한다. "광주형 일자리라는 대의를 위해 어느 한 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식으로는 곤란하다. 당위성만으로 상대방을 압박해서도 안된다. 일시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서로가 도움이 되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컨센서스를 이뤄야 할 것이다"라고. 모두 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서로가 윈윈하는 방안을 찾고 공감대를 확산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광주가 처한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 광주는 울산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생산 도시다. 자동차 산업이 광주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육박한다. 자동차 산업은 광주 최대 주력 사업이다. 그러나 속을 조금만 들

여다보면 취약함이 드러난다. 광주 지역에 자동차 부품 기업이 280여 개에 달하는 데 1차 협력회사는 27개사다. 전국 1차 협력사 890여 개 가운데 3% 남짓한 수준이고 영세한 중소 부품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5·18의 정의로운 항쟁이 대물류 중심의 부가가치가 낮은 회사가 대부분이다.

이런 문제들을 타개하고 광주 자동차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현대차 완성차 공장 유치다. 우리가 이 일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광주는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가장 앞장섰던 도시다. 광주시민은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때 외면하지 않고 높은 시민 의식과 연대 의식을 발휘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낸 역사적 경험과 저력을 갖고 있다. 5·18의 정의로운 항쟁이 정치, 사회 민주화로 이어졌듯이, 광주공동체 정신을 경제 민주화로 계승하겠다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새해를 맞이해 광주 시민들이 슬기롭게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 침체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 제조업체에 신선한 이정표를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

社說

체계적 선양사업으로 독립운동 정신 기려야

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자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맞는 해이다. 선조들의 자주독립 정신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촛불 혁명'으로 이어져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이를 기리기 위해 광주·전남에서도 다채로운 기념사업이나 행사가 추진된다.

광주의 3·1운동은 1919년 3월 10일 부동고 아래 장터에 숭일학교와 수피아여학교 학생 등 1000여 명이 모이면서 시작됐다. 학생들은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나눠 주며 시위를 벌였는데 일제는 헌병과 경찰 등을 동원해 100여 명을 체포했다. 3월 13일에도 광주을 큰강에서 1000여 명이 만세를 부르며 행진을 했다. 또한 3·1운동 기간 영암과 담양, 완도, 곡성, 영광, 함평 등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40여 차례의 시위가 펼쳐졌다.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독립운동은 이듬해 3월까지 전국은 물론 해외까지 확산됐다. 민족 차별의 식민지 교육에 반대한 독립 만세 운동에는 5만 4000여 명이 참가해 1600명이 넘게 검거됐고 2900여 명이 퇴학이나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성공 가능성 확인한 지역 축제 집중 육성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 보성 다향대축제 등 광주·전남 4개 축제가 '2019 문화관광축제' 최우수 축제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1000개(지난해 말 기준)에 가까운 축제가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 하겠다. 특히 추억의 총장축제와 다향대축제는 지난해 우수 축제에서 한 등급 승격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2019년도 문화관광축제 최우수 축제에 추억의 총장축제, 다향대축제, 담양 대나무축제,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 등 41개를 선정, 발표했다.

이들 축제에는 관광진흥기금 2억 원이 주어지며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해외 홍보 및 마케팅 지원도 받게 된다.

국내 대표적인 거리 축제인 추억의 총장축제는 지난해 태풍 '콩레이'의 복상에 따라 축제 기간이 당초 5일에서 3일간으로 단축됐는데도 30여 만 명이 방문했

다. 서커스와 청바지를 콘셉트로 다양한 서커스·마술 쇼, 거리 퍼레이드, 추억의 테마거리 등을 열어 인기를 끌었다. 또한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는 2014년부터 6년 연속 최우수 축제에 선정됐다.

추억의 총장축제가 최우수 축제에 한 등급 승격된 비결은 선택과 집중이었다. 거리의 축제라는 콘셉트를 살려 방대한 프로그램의 수를 과감히 줄이는 대신 메인 행사인 거리 퍼레이드와 복고풍의 콘텐츠를 대폭 보강한 게 통한 것이다.

이런 최우수 축제들의 공통점은 지역의 특색을 담고 지역민이 주체가 됐다는 사실이다. 관 주도의 보여주기식 행사로는 이제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축제에 성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성공 가능성이 확인된 이들 축제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에 거듭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들 역시 난립된 축제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

無等鼓

취임한 지 1년이 지난 일본 히가시노 쿠바루 히데오 미야자키현 지사의 지지율은 94%다. 그는 지사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TV 프로그램에 게스트나 패널로 나와 지역을 알리고, 공직에 혁신 바람을 일으키며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보수 우익 자민당 강세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그의 비현실적인 공공 지지율은 단순히 정적 유명 코미디언으로 서의 인기에 힘입은 것만은 아니다. 그는 양방을 절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한국궐업의 조사에 따르면 영어의 몸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5%, 고 김영삼 대통령이 6%의 지지율로 역대 최저치 1, 2위를 기록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전무후무한 처우를 맞았고, 김 전 대통령은 진보 정부 수립의 결정적인 계기를 줬다는 점을 누구나 알고 있다. 취임 초기 80%가 넘는 만큼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며, 지난해 말 '데드크로스' (지지율 역전 현상), 즉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는 소식이다. 출범 20개월 만이다.

지지율과 소신

정치인은 소신과 지지율 사이에서 고민한다. 소신대로 하거나 지지율이 격정이고, 지지율만 살피자니 자신의 색깔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소신을 지키며 동시에 지지를 얻는 것이야말로 정치인들의 오랜 바람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출범 당시 강조한 것들을 곱씹고, 서민의 편에서 그 이익에 부합하는 혁신 정책을 주저치 말고 실천했으면 한다. 그것이 옳고 곤다. 대중의 지지 정도에 의해 입지의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권의 미래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
| 光州日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 | | |
|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경 영 지 원 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 업무국 220-0551 |
|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61 | (FAX 222-8005) | (FAX 222-0195) |
| 정치부 220-0632 | 여론매체부 220-065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
| 경제부 220-0663 | 예향부 220-0692 | (FAX 222-0195) | (FAX 222-0195) |
| 사회부 220-0664 | 사진부 220-0693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전남본부 220-0642 | 체육부 220-0697 | (FAX 02-773-9335) |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